

그림책의 파라텍스트에 나타난 번역전략: 『코끼리 아이』를 중심으로

이 강 선
(성균관대)

1. 들어가는 말

유아용 그림책은 유아를 위한 책이라는 전제하에 주로 독자인 유아에 시각을 맞추어 쓰고 그리고 또 번역되어왔다. 그러나 그림책은 사실 어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책으로, 대상독자인 유아는 책을 접하는 과정인 선택에서부터 배제된다. 어른이 선택해서 구입한 책을 읽어야 하고, 글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어른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어야 한다. 물론 유아도 그림을 즐길 수 있고, 그림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그림을 읽는 방법 또한 훈련에 의해 깨우치는 것인 만큼 역시 어른이 말해주는 내용에 따라 읽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유아의 그림책 읽기는 일생에 걸친 독서 중 타인, 특히 부모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는 분야인 것이다. 이에 주목한 오이티넨(Oittinen)은 어른이 먼저 어린이 책에 매혹되어야 하고 설득당해야 하며 확신해야 하므로 어린이 책은

어른의 취향을 따라야 한다고 논한다(2006: 35-36).

뒤집어보면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생산과정뿐 아니라 소비과정에서 결정권을 지닌 사람은 어른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동네 도서관 유아 열람실에서는 부모가 유아의 책을 한 아름 빌려가거나 함께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결정권을 지닌 어른이 책을 선택하는데, 성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라는 특성상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목적은 교육이다. 독자 자체가 학습이지만 부모는 보다 구체적인 기대치를 갖기 마련으로, 교육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그런 필요성은 부모가 먼저 그림책을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¹⁾ 알아야 읽힐 수 있고 책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으로 유아용 책에 어른을 위한 해설 혹은 안내를 실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을 만들거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출판 집단뿐 아니라 책을 수용, 소비하는 부모 집단도 영향을 끼친다. 부모 집단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및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 즉 세 가지 영역이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책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 창작물인 그림책을 만든 아이디어는 개인, 작가의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비판, 수용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활용되는 집단, 출판의 세계이고, 이 아이디어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 생산자, 소비자는 그들이 속한 문화와 이념의 영향 속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달리 말해 개인, 관련 영역,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어 어느 하나만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Csikszentmihalyi 2015: 51-53). 번역도 마찬가지로, 번역은 개인이 하지만 책이 나오기까지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요구나 필요, 평가 및 동의가 작용한다. 특히 그 분야 사람들의 사회 요구나 기대, 그리고 영역에서 많은 이들의 암묵적 동의와 기대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신혜은 2009: 228).

한국은 교육에 열성적인 나라로, 사회에 팽배한 분위기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에 열중하도록 만든다. 공교육이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각종 사교육은 학교 내에서 뒤쳐지지 않거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행해진다. 학교

1) 웅진다솜의 『코끼리아이』 영어판 웅진 클래식 잉글리시 『부모길잡이』 6-7.

교육은 만 6세 이상의 어린이에서 정식으로 시작한다. 유아는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어린이를 지칭하는데, 교육이 시작되기 전 연령이므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학습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계층이다.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연령대로, 책 내용을 외우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듯 보인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인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오히려 눈에 띄게 된다. 즐기기 위해 읽는 유아용 그림책에 학습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면, 그 현상은 소비자인 부모와 생산자의 경향을 읽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의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된다.

책을 펴내는 목적과 읽는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책의 파라텍스트(paratext)로, 여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취향 혹은 영향을 읽을 수 있다. 파라텍스트란 ‘결’ 혹은 ‘기생’을 뜻하는 ‘para’와 ‘text’의 합성어로, 텍스트 곁에 있는 주변요소란 뜻이다. 물리적 형태를 가진 이 메시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책 속의 서사와 관계되는 것들로 페리텍스트(peritext: 책의 판형, 표지, 제목, 먼지, 글자체, 글과 그림의 레이아웃)와 에피텍스트(epitext: 서문, 출판사, 책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적인 요소들)로 나뉜다. 더 상세히 논한다면 저자 이름을 비롯, 장르, 제목, 표지, 속지, 서문, 역자 서문, 개정판에 실린 두 번째 서문, 각 장의 제목이나 각주, 출판사가 정한 시리즈, 에필로그, 뒤표지, 추천사, 출판사의 책 소개, 신문 잡지에 실린 평, 독자의 서평 등이다(Genette 1997: 2-3). 이들 파라텍스트는 제목이나 서문, 장 제목 혹은 특정한 정보처럼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거나 같은 책 속에 있기도 하지만 책 이외 신문·잡지의 서평이나 독자 서평처럼 다른 매체에 나타나기도 한다(Genette 1997: 5). 파라텍스트들은 책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부여, 텍스트를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독자를 설득하게 된다.

출간된 지 오래 된 텍스트의 경우, 파라텍스트는 대상독자를 더욱 섬세하게 배려하게 된다. 세대를 통과해 전해지는 동안 텍스트는 변치 않지만 수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용자는 시대마다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앞 세대와 동일한 목적이나 새로운 목적으로 텍스트를 수용하게 되며, 파라텍스트는 그 점을 반영한다. 즉 원본은 동일하지만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본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교육방향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요구조건도 달라지

기 때문에 파라텍스트도 달라지고 각기 다른 번역본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번역목적 및 동기, 그리고 대상 독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번역서의 서문이나 후기에 실려 있지만(박옥수 2010: 131) 유아용 그림책일 경우에는 서문이나 후기가 일췌 생략된다. 심지어는 저자 소개마저 생략하기도 한다. 따라서 번역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파라텍스트들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파라텍스트 중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번역전략이 특히 드러나 있다고 보는 페리텍스트 중 앞표지(제목, 그림, 출판사가 정한 시리즈 명칭, 독특함을 나타내는 사항), 뒤표지, (본문 뒤에 따르는 학습 정보인) 질문 혹은 생각 란으로 파라텍스트를 한정, 분석한다. 이처럼 페리텍스트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페리텍스트가 가장 전형적인 파라텍스트(임종기 1994: 24)인 동시에 대표성을 띄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파라텍스트 전체를 포함하면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신세니, 안지성 80).

그림책이 한국의 책세계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의 일이며, 번역그림책이 범람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이후의 일이고, 창작 그림책은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선주 외 7인 2008: 298). 이처럼 그림책의 역사가 짧고 번역그림책의 역사는 더욱 짧으므로, 번역전략 변화를 비교적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림책 파라텍스트의 특이점을 분석하면 그림책을 택하는 기대기준이 달라졌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달리 말해 그림책을 펴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아용 그림책을 택한 것은 앞서 언급한 학교교육과 유아의 관련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닌 책으로 한정했다. 우선 출간된 지 오래 된 텍스트다. 오래 된 동화는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시대마다 달리 전략을 세워야 하고 책이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책마다 독특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그림책으로 한정된 것은 위에 언급했듯 유아용 그림책이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맞거나 정반대인 경우를 드러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그림책의 역사가 짧으므로 그로 인해 파라텍스트에 드러난다고 여겨지는 번역전략의 변천사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넷째, 영어와 관련한 항목이 있는 텍스트를 택했다. 앞서 논했듯 사회가 중시하는 교육방침에 따라 부모가 열정을 쏟는 교육 대상이 달라진다. 책과 관련지어서는 외국어 학습이 부모

의 교육열정을 잘 드러낸다고 볼 때, 영어 학습과 관련된 파라텍스트가 있는 그림책이 그 실례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그림책으로 『코끼리아이』²⁾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상세히 논한다.

2. 「코끼리 아이」의 문학적 가치와 변천사

키플링(Kipling)의 『바로 그 이야기』(*Just So Stories*)는 1902년 출간된 이래 수많은 독자들이 읽는 책이다. 출간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더 가디언』(*The Guardian*)이나 『뉴요커』(*Newyorker*)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 서평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증명한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어린이의 시각으로 볼 때 순수하게 상상력을 강화하고, 인식을 생생하게 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웃음을 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잘난 체하지 않는 즐거움을 주는 덕분”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Karlin 2016: xvi).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에도 다양한 번역서가 존재한다.³⁾ 오랜 시간에 걸쳐 나온 여러 번역서는 곧 한국적 정서에 맞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 논문이 살펴볼 대상작품은 이 작품의 12개 이야기 중 하나인 「코끼리 아이」(‘The Elephant’s Child’)로, 이야기의 정점인 코끼리 아이와 악어가 서로 코를 당기는 장면은 당시 책의 표지를 장식할 만큼 상징적이다. 모든 이야기들을 대표할 만큼 본 책의 특성을 확연하게 보여줄 재미와 특징을 함께 갖고 있

2) 「코끼리 아이」는 원래 단편이지만 그림책으로 발간, 단권으로 존재하므로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문장부호를 각각 달리 사용하였다.

3) 국내에서는 이 책 전체보다는 이야기 중 하나를 번역한 경우가 많다. 국립청소년어린 이도서관에서 이 제목으로 검색하면 3권이 뜨지만 이야기 하나가 단행본으로 나온 경우는 31권, 중역되어 다른 제목으로 번역되거나 아예 원저자 이름이 없거나 다른 책과 합본된 경우를 찾으면 훨씬 더 많아진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코끼리아이」만 해도 20여권이 검색되는데 이 숫자는 합본을 제외한 것이다.

는 것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도 그 상징성은 여전히 웨더베인(Weathervane), 더 컨트리 라이프 프레스(The Country Life Press)에서 펴낸 책을 비롯한 많은 판본이 이 장면을 책의 표지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코끼리 아이」의 주인공 동물은 읽는 어린이 자신처럼 평범하고 순진하며, 호기심이 풍부하다. 이 이야기가 책에 실린 다른 이야기에 비해 인기를 끄는 것은 주인공 코끼리가 코뿔소나 캥거루 같은 다른 등장 동물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Petzold 1987: 16). 배경은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호기심이 많은 코끼리 아이가 어른들이 회피하는 질문을 하다가 매번 엉덩이를 맞고 소외당한다. 그럼에도 코끼리 아이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고 외면하는 의문, 악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다. 림포포강에서 드디어 악어를 만나지만 코끼리 아이는 악어에게 코를 물려 코가 길어진다. 코끼리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긴 코를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 어른 코끼리들에게 복수한다. 어른 코끼리들은 긴 코의 장점을 깨닫고 악어를 찾아가 코를 길게 만든다는 결말로 끝난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독자인 5, 6세의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로, 질문을 했다가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혼나는,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 따라서 아이들은 시작 부분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결말 부분에서는 대리만족을 느낀다. 독자는 등장인물의 행동, 인물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 때 공감한다(권승희 2015: 146). 그러므로 어릴 적 잠자리에서 이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머파고(Morpurgo)는 「코끼리 아이」가 가장 울림이 컸다고 말하는 것이다(2013: Web).

이러한 재미와 상징성 때문에 한국에서도 「코끼리 아이」만 따로 떼어 다른 책이 많다. 국립아동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살펴보면 1984년 이래 18개의 다른 출판사가 「코끼리 아이」를 독립된 그림책으로 펴냈다. 본 책이 흥미와 가치 면에서 월등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책은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독립된 그림책으로, 중복 발행은 제외했다.⁴⁾

「코끼리 아이」의 번역그림책들은 두 단계 혹은 세 단계의 번역을 거친다. 우선 원본인 글 텍스트를 그림 텍스트로 옮기는 기호간 번역이 일어난다(1단

4) 이 그림책들은 출판사 편집으로 제목이 달라진 경우를 포함한다.

계). 이 과정에서 각각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출발언어에서 대상언어로 옮기는 언어간 번역이 일어난다(2단계). 또한 영어에서 일어, 일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는 중역이 일어나기도 한다(3단계). 18권의 그림책(이하 TT)의 경우를 정리하면 원문 변형 없이 그림책을 번역한 경우(TT 6), 원문을 편집한 그림책을 번역한 경우(TT 10), 원문을 개작해 그에 맞추어 그림을 그린 책을 번역한 경우(TT 7), 원문을 한국인 번역자 혹은 편집자가 개작한 다음, 이에 맞추어 삽화가가 그림을 그린 경우(TT 2, 3, 5, 8), 원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그림을 선정, 내용을 번역, 책으로 만든 경우(TT 9)가 있는가하면, 영어에서 일어,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옮긴 중역(TT 4)도 있고 번역자 및 삽화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TT 1)도 있다. 원본이 처음 출간될 당시 글 위주의 본문에 간단한 삽화 정도가 실렸지만, 1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인 현재는 이처럼 다양한 텍스트 형태와 번역 전략이 나타난 것이다.

이 번역그림책들의 대상독자는 3-7세의 유아로, 이는 책들이 동일 독자층을 상대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번역전략은 우리나라 독자들, 특히 이 책을 구입할 부모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따로 세웠으리라고 가정한다. 무엇이 수용자들을 끌어들이는 지 하는 의문은 오늘날 한국인이 유아용 책을 고르는 성향을 말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번역전략과 파라텍스트

2016년 5월 현재, ‘번역전략’을 키워드로 했을 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된 학술지 논문은 전체 666건이며, 범위를 아동문학 번역전략으로 좁히면 28건의 논문이 나타난다. 이 논문들 중 순수하게 번역전략을 연구한 논문은 13건으로, 이중독자층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을 연구한 논문이 대다수다. 이들 논문은 주로 본문 번역전략을 논하고 있다. 동일한 책이 대상독자에 따라 달리 번역된다는 사실에 착안,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 어른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의 전략차이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과는 달리 동일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책에 대해 출판사마다 다른 번역서를 내놓았다는 사실에 주목, 이들의 전략을 특히 파라텍스트 측면에서 살핀다.

국내의 유아관련 파라텍스트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로 한국 학술정보에 따르면 학술지논문은 불과 십여편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번역에서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변형 연구」(신세니, 안지성 2011)를 비롯, 포스터(현은자, 이수형 2015), 표지(송희진, 2014, 송희진, 문철 2014), 본문텍스트와 면지의 관계성(심향분 2011), 표지와 속표지와 면지(김정선: 2013), 파라텍스트 관련 시각표현(김지현, 강아영 2007), 파라텍스트의 의미(김정준, 신원애 2016), 번역 그림책 제목의 변형과 그 이유(신혜은 2009)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을 대략 정리하면 파라텍스트의 변형 양상과 그 의의를 밝히는 연구(신세니, 신혜은 등), 파라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심향분, 현은자의 등), 파라텍스트 자체에 관한 연구(김정선, 송희진, 김지현 등)가 있다. 본 연구 또한 파라텍스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지만, 번역전략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아동문학 번역전략은 대상문화에서 잠재구입자의 이해성을 높여 더욱 다가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잠재구입자에게 이 책이 더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구입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텍스트이다. 따라서 파라텍스트에 유명작가의 이름이 부각되거나 유명한 상을 수상한 작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선택을 망설이는 독자에게 이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안내와 다름없다(Sutherland 2013: 256). 본 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코끼리 아이』의 내용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유명하므로, 좋다는 막연한 인식을 뛰어넘을 무언가가 필요하다. 수용자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유아를 위한 그림책이므로 그에 맞는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유아만을 위한 독특한 기능을 알려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물론, 한국적 특성에 맞는 파라텍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원문에 없는 이러한 파라텍스트는 작품의 특성을 달라지게 만들므로, 번역전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4. 『코끼리 아이』의 파라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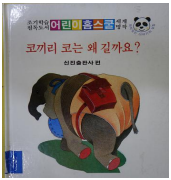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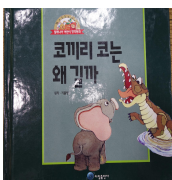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1984년 이후 발간된 18권의 그림책 중 발간년도를 기준으로 10권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번역자와 삽화가가 확실하며 파라텍스트에 특이점

이 드러나는 7권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기타 그림책들은 주로 출판사가 정한 시리즈와 부모를 위한 해설란, 독특한 형태 등이 있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4.1. 표지

표지는 책의 내용이 저자로부터 독자에게 전이되는 동시에 독자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저자와 독자 상호간의 교류가 일어난다(Genette 1997: 2). 독자는 표지를 보면서 그 책에서 무엇을 얻을지 기대하므로, 표지는 현실의 독자가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다(나선희 2009: 102). 표지에서 독자의 기대를 만들어내는 정보는 제목과 그림, 출판사가 정한 그 책의 시리즈 명칭 및 저자와 삽화가 이름 및 출판사 이름 등이다. 이 항목에서는 책 크기, 판형, 그림과 제목의 연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표 1〉 표지 그림 TT 1-4

TT 1	TT 2	TT 3	TT 4
			

각 그림책의 표지 그림은 각기 독특함을 드러내는 한편 제목과 연관이 있다. TT 1(270mm)의 표지에는 정면에 기저귀를 차고 목수건을 한 어린 코끼리가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저귀는 어리다는 것을, 가방은 여행을 강조한다. 어린 코끼리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1984년 발간된 이 그림책은 원작자와 번역자, 삽화가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면지와 저작권 페이지도 없고 마지막 페이지와 뒤페이지가 붙어 있어 그림책의 기본 형태를 무시”(김세희, 현은자 2005: 185)하는 한국 그림책 초창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표지 뒷면에는 ‘조기학습필독도서 어

린이홈스쿨 세계명작'이라는 시리즈 명칭이 적혀 있다.

TT 2(1999, 210mm)는 코가 짧은 아기코끼리가 입을 벌린 악어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 넣어 두 동물이 만나는 장면을 나타냈다. 이 동화에서 가장 절정인 일화를 나타내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하게 한다. 원저자를 표시했고, 면지와 속지, 속표지라는 기본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다. 그림 위쪽에 '밀레니아 어린이 명작동화'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이 책의 시리즈를 알려준다. 뒤표지에는 이 동화가 명작동화시리즈임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있다.

TT 3(2001, 210mm)은 원작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표지에는 얼굴을 찡그린 아기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며 긴 코를 잡고 있는데, 코가 짧은 다른 코끼리들, 악어, 원숭이, 기린이 반대편에서 아기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다. 아기코끼리가 가장 커서 주인공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왜 울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 그림의 동물들은 실제라기보다는 장난감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책의 용도를 짐작하게 한다. '퍼즐명작동화'라는 시리즈 명칭이 적혀 있고, 아래편에 있는 퍼즐 모양 속에 '퍼즐+스티커'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다. 뒤표지에도 '퍼즐+스티커'라고 써서 책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고 퍼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호기심많은 아기코끼리"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다. 아래에는 "재미있게 퍼즐맞추기놀이를 해보세요."라는 글귀와 더불어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97-32031"라는 글귀를 찍어 독특함을 강조한다.

〈표 2〉 표지 그림 TT 5-8

TT 5	TT 6	TT 7	TT 8

TT 4(2002, 250*250mm)는 중역으로, 일본인 번역자 및 삽화가가 편역하고 그린 것을 다시 한국어로 옮겼다. 그림은 악어가 입을 찡 벌리고 있고 코가 짧은

은 아기코끼리가 악어 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돈다. TT 2처럼 이야기 속 절정인 장면을 그린 동시에 아기코끼리의 호기심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어위에 노란 원이 있고 그 원 속에 “차일드 애플 창작동화”라는 글귀를 적어 넣어 원이 메달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TT 5(2003)는 세로가 긴 직사각형 판형이다(260mm). 코끼리들이 코가 긴 아기코끼리를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혼자 얼굴이 밝은 색인 아기코끼리는 의기양양하게 긴 코를 치켜들고 있고 다른 코끼리들은 긴 코를 올려다보고 있다. 이 표지는 왜 아기 코끼리만 다른 코끼리와 코가 다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본문에 없는 이 그림은 각각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문의 결론을 집약해 나타내고 있어, 본문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다(Nikolajeva 2013: 351)고 볼 수 있다. 뒤표지에는 어린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맞대고 앉아 서로 긴 코를 감고 있어 사이가 좋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본문에 없는, 결말 후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TT 6(2004)은 분석 대상 중 가장 크다(210*297mm). 세로가 긴 이 책은 그림 하나가 양쪽 면 전체를 차지해 전시회장에 걸린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표지 전체에 녹색의 나뭇잎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 동그란 원이 있으며, 아래쪽에 코가 긴 아기코끼리가 발을 올려놓고 있어 녹색 숲 우물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든다. 이 그림은 호기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상화한 것으로 “호기심쟁이 아기코끼리”라는 제목과 잘 어우러져 있다.

TT 7(2005, 210*297mm)의 표지는 중앙에 코끼리 머리와 코만 크게 그려 넣었고 뒤표지에는 몸통이 그려져 있어 연결하면 전체 모습이 된다. 긴 코는 둘둘 말려 있고 그 코를 따라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라는 제목이 씌어 있다. 그림과 서사가 보완, 코가 긴 이유를 조명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길어지게 되었다는 암시는 없다. 이 표지는 코끼리 코가 긴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다.

TT 8(2007, 210mm)은 책 자체를 고리 형태로 만들었는데, 종이가 두꺼워 들고 다닐 수 있다. 표지는 코끼리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코와 몸통사이에 난 구멍으로 장난을 할 수도 있다. 판형은 작가가 주제를 표시하는 다른 방식(김정

준, 신원에 2016: 187)임을 고려한다면, 책을 장난감처럼 즐기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TT 9(2013)는 판형이 크다(230*230mm). 가로가 길어 티브이 화면을 보는 듯한 이 책의 경우, 표지 중앙에 갈색의 코끼리가 크게 그려져 있어 주인공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동물들, 타조와 코뿔소, 악어, 어른 코끼리가 작게 그려져 있고 아기코끼리가 코를 바나나 잎으로 감싼 모습을 그렸다. 이 표지는 줄거리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 뒤표지에는 이야기의 결말을 그렸다. TT 9의 표지, 왼쪽 윗면에는 ‘HOWHY?’라는 글씨가 물음표 속에 써어 있고, 물음표 밑 기호인 점에는 ‘아빠, 왜’라고 쓰여 있어 눈길을 끈다. ‘HOWHY?’는 ‘How’와 ‘Why’를 겹쳐 써 ‘어떻게’와 ‘왜’를 동시에 강조하는 효과를 끌어낸다. ‘궁금개념동화’라고 정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시리즈 항목에서 다시 논한다.

〈표 3〉 표지 그림 TT 9-10



TT 10(2015)은 타책에 비해 작지만 가로가 길어(190*260mm), 일반적인 그림책들이 택하는 형인 수평판형이다. 표지그림에는 주요 등장 동물인 아기코끼리와 뱀, 악어가 각각 땅과 물속에 있어 서로 대치하는 모양새로 등장하고 있다. 태양인 듯한 노란 색의 큰 원이 눈에 띈는데 그 안에 제목이 적혀 있다. 코끼리 코 아래 영어제목이 적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표지 오른쪽 아래 금색 원이 있고 안에 ‘노벨상 수상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저자가 노벨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 작품이 노벨상 수상작은 아니므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표지 윗면에 ‘기초논술수상창작동화’라는 시리즈 명칭이 써어 있다.

살펴본 결과, 표지 그림들은 제목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나타내고 있었다. 주인공을 그리거나, 결정적인 일화를 묘사하거나, 책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어서 본문내용으로 들어가는 관문 구실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들 표지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림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TT 5처럼 서사가 표현하지 않는 빈틈을 그리고 있어, 결가지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편으로 출판사에서 결정한 시리즈를 명시, 책의 종류를 알려주어 부모의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즉 표지에는 책의 전반적 내용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18권의 그림은 모두 등장동물과 배경이 단순하고 간략하다. 이 그림들은 유아가 사물의 모든 면을 고려하지 못하며 지각적(知覺的)으로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에만 집중하여 사고하는 중심화의 경향을 보인다(Ginsburg 1988: 156)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2. 제목

제목은 표지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저자는 제목에 전체를 담고자 하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므로, 가능한 원제목이 지닌 의미나 상징, 어조를 유지해 번역서를 읽는 독자가 원서 독자와 비슷한 공간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신혜은 2009: 244).

번역서 제목은 출판사와 편집자와 번역자가 상의해 결정하는데, 이는 개인의 선호도가 아니라 목표 문화의 사회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끼리 아이’의 번역 그림책 18권의 제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난다. 이 제목들은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읽는 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제목이 주인공을 강조한 경우를 보자. TT 3, 6의 ‘호기심 많은 아기코끼리’와 ‘호기심쟁이 아기코끼리’는 호기심을 문장의 제일 앞에 두어 강조한다. 이 제목은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 읽는 이에게 정보를 제공, 호기심 때문에 무언가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읽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왜 (아기) 코끼리 코는 길(어졌을)까(요)?’이다. 번역서에 따라서 ‘아기(아이)’는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아기’는 주인공이 어리다는 것을 강조, 글을 읽거나 듣는 독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기라는 특성에서 기존의 코끼리와는

달리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길어졌을까(요)’로 받아 아기 코끼리 코만 길어진 이유를 궁금해 하도록 만든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코끼리 아이’로 코끼리 아이는 어린 코끼리, 즉 기성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를 뜻한다. 키플링은 ‘새로운 코끼리’(47)라고 특별히 표현해 이전의 코끼리와는 다름을 강조, 획기적으로 달라진 세대임을 말하고 있다. 원제인 ‘코끼리 아이’는 자극이 없어 밋밋하다. 달리 말해서 이 제목을 읽는 독자는 편안하게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줄거리를 따라 등장하는 동물들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체험하게 된다. 아기코끼리에게 이 입해 다른 동물들에게 맞거나, 콜로콜로새를 만나 여행을 떠나고, 이어 이색비단뱀, 악어 등을 만나 벌어지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목은 이야기가 제공하는 생각과 인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읽어 나가도록 한다 (Nodelman II 1996: 116).

‘호기심쟁이 아기코끼리’라는 제목은 주인공의 성격을 강조한다. 호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사건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으로, 과정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러나 ‘왜 코끼리의 코는 길어졌을까’라고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된다. 저자가 마련해놓은 등장 동물의 다양한 특성과 사건을 즐기고 체험하는 대신 답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 질문을 푸는데 열중한다. 필자가 도서관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좋은 예다.⁵⁾ 그녀는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TT 6을 읽어준 다음, “왜 코끼리 코가 길어졌지?”라고 물었고 “악어에게 물려서”라고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강렬한 제목은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출판사는 원제인 ‘코끼리 아이’만으로는 책을 사는 주체인 어른과 독자인 어린이 모두를 끌어들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좀 더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변형된 제목은 원제 제목에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표현을 첨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신혜은 2009: 232). 재미있는 것은 이 동화를 교실에서 번역했을 때 ‘코끼리 아이’, ‘아기 코끼리’등 여러 제목이 나왔으나 학생들은 그 중에서 ‘아기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를 가장 나은 제목으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학생들과 출판사의 제목 선호도는 일치한다. 제목에서 나타

5) 2016년 4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열람실.

난 이 번역전략이 뜻하는 바는 논의를 전개해가면서 더 확실해지리라고 본다.

4.3. 출판사에서 정한 시리즈나 전집의 명칭

표지에 쓰여 있는 책의 시리즈 혹은 전집의 명칭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출판사는 시리즈나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일괄해서 여러 책을 펴내고 있으므로 그 명칭만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일한 명칭 하에 다수의 책을 펴낼 경우 출판사측은 보다 더 신중하기 마련인데, 이는 단권일 경우와는 달리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크고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시리즈 혹은 전집 명칭은 당시 교육 경향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명칭은 잠재구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시리즈인 경우 낱권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전집인 경우 수십 권에 달하는 책을 한 번에 구입해야 한다. 일괄구매에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잠재구입자 또한 구매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집 명칭은 잠재구입자가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도와 들어맞아야 한다.

TT 6, 7은 단행본으로 시리즈 명칭이 없다. TT 2, 4, 5, 8에는 ‘명작동화’라는 시리즈 명칭이 있다. 이 책들에는 해설 혹은 정보 없이 본문 위주의, 즐거움을 위한 읽기라는 목적에 충실하다. TT 2는 1999년에 간행된 책으로 시리즈 명칭은 ‘밀레니아 어린이 명작 동화’다. ‘밀레니아’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뜻한다. 2000년을 기념해 어린이를 위한 세계 명작동화를 펴내겠다는 야심찬 기획시리즈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책에는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아주 짝막한 해설란이 있다.

TT 4는 2002년 간행으로, 시리즈 명칭은 ‘차일드 애플 창작동화’다. 이 시리즈는 일본의 차일드 애플 동화 전집을 번역한 것으로 국내에서 대표 스테디 셀러 중 하나로 꼽힌다⁶⁾. 2003년에 간행된 TT 5에는 ‘토토리 세계 명작동화’라는 시리즈 명칭이 있다. TT 8의 시리즈 명칭은 ‘후크 북’으로 책의 형태와 관련 있다. 유아가 장난감처럼 들고 다니며 갖고 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T 1, 3, 9, 10은 시리즈 명칭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역력하게

6) ‘엄마 기자가 직접 구입해보고 내린 결론’ (2014.05.08.) <매거진 키즈맘> 2016년 7월 8일 검색. Available at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4050828690>

읽을 수 있다. TT 1(1984)은 ‘어린이홈스쿨세계명작’이라는 시리즈에 소속되어 있다. 즉 이 시리즈 명칭은 집에서 읽으면서 배우라는 의도를 말해주고 있다. ‘조기학습필독도서’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 정식 공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다른 정보는 없지만 ‘홈스쿨’과 ‘조기학습’이라는 시리즈의 명칭은 1980년대 일기 시작한 당시의 조기교육 성향을 말해주며(고선주 외 7인 2008: 299), 조기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의 시선을 끌었음직하다.

TT 3(2001)은 ‘퍼즐 명작동화’ 시리즈에 속한다. 부록으로 퍼즐과 스티커를 넣었는데, 퍼즐은 동물그림을 맞추도록 했고 스티커는 동물 그림과 단어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고 단어와 동물을 일치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간단하지만 놀이와 학습을 함께 하도록 한 이 파라텍스트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보다 발전된 형태의 퍼즐 동화들이 판매 중이다. 정통 독서 대신 놀이와 독서를 매치시킨 ‘신세대형’ 독서경향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⁸⁾

TT 9, 10은 생각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이 학습 관련 파라텍스트는 저자나 역자가 아닌 제 3의 인물들이 추가한 것으로 번역서 발행인이나 편집자가 쓴 파라텍스트(editorial paratexts)(임종기 1994: 26)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TT 9은 2013년에 간행되었고 ‘HOWHY?’ 시리즈라는 별칭이 있고 출판사는 이 시리즈에 ‘궁금개념동화’라는 명칭을 붙였다. 2015년에 출간된 TT 10은 ‘기초논술상 수상작’이라는 시리즈 명칭을 갖고 있다.

TT 9(2013)에는 ‘아빠의 스토리텔링’과 ‘나의 스토리텔링’ 항목이 실려 있다. 다양한 탐색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파라텍스트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책을 읽거나 듣고 즐거움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먼저 아빠의 스토리

7) ‘조기교육 실시의 시급성과 전제조건’. (1980.12. 29.) <경향신문> 2016년 7월 20일 검색. Available at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122900329202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12-29&officeId=00032&pageNo=2&printNo=10847&publishType=00020>

8) 최정훈 (1992.10.11.). ‘어린이 독서 신세대형으로 변모’.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검색. Available at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10110032911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10-11&officeId=00032&pageNo=15&printNo=14550&publishType=00010>

텔링에서는 아이가 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질문과 답을 다루고 있다. “아빠 왜 그래요”, 왜 혹은 무엇에 관한 항목이 두 페이지를 차지한다. ‘부모님께’라는 안내문을 따로 두어 이 항목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나의 스토리텔링’ 항목을 두었다. 아이를 향한 이 항목은 줄거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하고 묻는다. 악어가 코끼리 코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어, 어린이가 들은 것을 기억해내고 자신을 주인공 동물에 대입하도록 한다.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게 해 실제 체험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항목은 스토리텔링의 목적에 부합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리 있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듣는 기술 발달이라는 면에서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목적인 듣기에도 부합한다. 즉 말하기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논술과 유사하다. 논술이란 결국 나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항목의 전제는 부모와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책 내용에 관한 질문을 던져, 양편 모두 참여하는 교육과 학습이다. 특히 TT 9은 내용의 단순한 정도로 보아 번역본 중 가장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가 읽고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TT 10은 ‘기초논술상 수상작’이라는 시리즈 명칭답게 논술과 연관된 파라텍스트를 제공한다. 이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월드수상창작동화’라는 시리즈를 설정, 세계에서 유명한 상을 수상한 창작동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 이름이나 수상경력도 책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 출판사는 원본에 없는 글귀를 넣어 목표 문화의 독자, 특히 책 구입을 결정하는 성인을 매혹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우선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부모를 위해 해설을 제공한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석해, 부모가 이야기의 의미를 미리 알고 아이가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파라텍스트에는 어른들이 아기코끼리를 때리는 이유, 림포포강이 위대한 이유 등을 적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주안점인 호기심의 역할과 개념, 그리고 도덕을 다룬다. 호기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논술란을 제공해 어린이로 하여

금 직접 답을 써넣도록 했다. 작은 글씨로 어른을 위한 도움말도 제공한다. 네 번째는 생각 펼치기 항목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생활에서 신문기사를 끌어와 물음을 제공한다. 이런 논술 관련 항목들은 어린 독자와 부모 모두가 생각해 보도록 돕는다.

4.4. 시리즈 명칭과 교육과정

각 시리즈 명칭은 책이 발간되던 당시의 교육 경향을 보여준다. 연관 신문 기사와 9차에 걸친 교육제도 과정이 명시한 바가 시리즈명칭에 드러나 있다. 1984년의 책은 ‘조기학습’을 시리즈명칭으로 삼아 당시의 경향을 반영했으나 특이 사항은 없다. 1997년까지『코끼리 아이』그림책의 파라텍스트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명작동화’라는 원래의 기능을 강조한다. 2001년부터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본문을 중시한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까지의 그림책 또한 파라텍스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각각 서사를 중시해 재미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읽고 즐기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이르면 이야기는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재료로 변한다. 2013년의 스토리텔링과 2015년의 논술에서 보다시피 이야기를 읽는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 의견을 말하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TT 9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분야인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었다. 스토리텔링은 2005년(RISS) 처음으로 한국의 학위 논문 주제로 등장했으며, 이후 많은 논문들은 2009년 개정 교과서가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2015년에 발간된 TT 10은 시리즈 명칭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듯 논술에 중점을 두고 파라텍스트를 구성했다. 이런 전략은 대상 문화에서 논술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다. 1997년 특정 분야에서 대입 논술이 재시행된 것을 시작으로(이윅희 2013: 274) 이후 최근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글쓰기와 표현의 중요성이 유아에게까지 확장, 적용되었음(고선주 외 7인 2008: 408)을 번역본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 9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가 바뀌면서 독서와 논술, 글쓰기와 발표가 중요하

게 되었고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독서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에서마저 논술과 스토리텔링이 번역전략으로 적극 활용된 것이다.

TT 5, 9는 영어와 관련 있는데, 9차 교육과정 개정은 영어 학습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했다. 수요가 공급을 불러낸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영어 학습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번역전략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모든 전략은 부모의 참여 없이는 소용없다. 유아는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지침을 따를 정도로 충분히 사고 과정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어른을 대상으로 한 전략인 것이다.

대상독자가 유아이므로 이 번역전략에서 선행학습 명시는 꼭 필요하다. 한국은 선행학습 금지법(2014)이 나올 정도로 선행학습이 횡행하는 나라로, 조기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출판사로 하여금 이 전략을 결정하도록 했고, 수용자, 특히 부모가 거기에 호응했다. 파라텍스트간의 차이는 대상문화에서 나타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TT 1, 2, 3, 4, 7, 8은 절판되어, 특정한 동네도서관과 국립아동도서관에서만 구할 수 있다. TT 5, 9, 10은 특히 출간 직후 온라인의 책 소개란에 독자 서평이 달렸는데, 인터넷 카페에서도 서평이 활발했다. 이들 서평은 각기 중점으로 삼는 내용이 달라 TT 5는 세계명작이라는 데, TT 9는 스토리텔링에, TT 9는 논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 반응은 파라텍스트를 활용한 출판사의 번역전략에 호응하는 것으로, 부모의 의도에 적중했음을 말하는 지표로 읽을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특정 회사가 독자들에게 선전하려고 서평용 책을 뿌린 데 기인할 수도 있으나 반응이 좋은 책이 입소문 나기 마련이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인터넷 카페를 이용,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그림책들은 파라텍스트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5. 영어가 있는 파라텍스트

분석 대상 그림책 10권 중 2권이 외국어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다. TT 9는 원작인 애니메이션의 영어 대본을 본문 뒤에 실어, 원하는 경우 이 대본을 읽도록 했다.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라면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이다. 실

제로 서평을 올린 여러 부모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적어놓았고⁹⁾,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한 회원은 자신의 아이가 뒷부분의 영어대본부터 읽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또한 한글과 영어가 들어있는 DVD를 제공, 골라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TT 5는 영역판이 있다. 한국어 역자가 개작한 책을 다시 영어로 옮겼다. 이 영역판은 한국어판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제목은 다른 원본과는 달리 “How Did Elephants Get Their Trunks?”이다. 이 영역본은 ‘악어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싶어요’를 “What do crocodiles eat?”로 옮겼다. 원본에서 ‘dinner’로 나타난 단어를 이 영역본은 ‘무엇’으로 옮겨 원본을 줄였다기보다는 한국식 표현을 영어로 옮긴 것임을 드러낸다.

이 영역판은 해외독자보다는 한국 어린이 독자, 특히 부모를 겨냥한다. 늘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필자가 이 영역판을 동네 도서관에서 빌리기 위해 한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은 영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증명한다. 이 영어그림책은 영역판을 읽어주는 오디오 씨디 또한 제공한다. 한편 영역판은 따로 교구와 부모를 위한 길잡이 책을 제공,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실제로 어느 부모는 한글판과 영역판을 나란히 구입한 후, 길잡이를 활용한 경험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¹⁰⁾.

5. 결론: 파라텍스트의 의의

어린이 문학 번역은 순수하지 않다(Oittinen 2006: 35). 어린이 번역도서에는 번역가, 도서 제작자, 비평가, 학부모등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오롯이 투영되기 때문이다(강경이 2015: 7), 『코끼리아이』의 번역전략에서 그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9) (2014.01.20.) ‘블루앤트리HOWHY시리즈 아기코끼리코는 왜 길어졌을까’ 개인블로그 2016년 6월 7일 검색. Available at <http://blog.naver.com/choejds/150184147184>

10) (2010.11.21.) ‘[토토리세계명작] 아기코끼리코는 왜 길어졌을까?-[토토리잉글리쉬클래스] HOW DID ELEPHANTS GET THEIR TRUNK?’ 개인블로그 2016년 5월 10일 검색. Available at <http://blog.naver.com/aijieun/20117314415>

지금까지 동일한 원문에서 나온 그림책 10권의 번역전략을 파라텍스트위주로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원본처럼 재미를 추구했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을 추구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확하게 나누어 지지는 않는다. 아동문학의 특성상 혼재하기 마련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나눈다면 재미에서 학습으로 가는 스펙트럼을 TT 3,7,8>TT 2,4,5, 6>TT 1, 9, 10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TT 8은 재미를 추구한 책의 대표적인 예로, 고리형 책 형태와 두꺼운 재질이 그 목적성을 드러낸다. TT 3은 퍼즐과 스티커를 활용,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추구했고, TT 7은 앞·뒤표지와 앞·뒤 날개를 활용, 서사를 확장했다. 이들 책은 책의 형태, 부속물, 날개, 뒤표지까지 서사를 강조하거나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해 “그림책의 놀이성을 증대”(신세나·안지성 2012: 83)한 것이다.

TT, 2, 4, 5, 6는 시리즈 명칭으로 명작임을 강조, 서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T 5는 앞뒤 면지를 활용, 각기 짧은 코와 긴 코로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그려줌으로써 내용 이해를 더 깊게 했다는 면에서 서사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명작이라는 명칭 자체가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학습을 추구하는 책들의 파라텍스트들은 교육,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런 경향은 출판사가 정한 시리즈 명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TT 1, 9, 10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각각 ‘조기학습’, ‘궁금개념’, ‘기초논술’이라는 용어로 학습과 관련됨을 명확히 드러낸다. 파라텍스트는 원텍스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쯤에 이르면 원텍스트가 보다 더 큰 목적인 교육을 위한 재료로 여겨질 수도 있다. “책은 보다 더 잘 소비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꾸민다”(임종기 1994: 13)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스스로 진화한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번역그림책의 파라텍스트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더욱이 그림책이라고 해서 학습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나오는 그림책일수록 파라텍스트가 현재의 교육상황을 더욱 상세히 반영하고 있었다. 단 한 종의 그림책이기는 하나 이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드러난 사례라고 하겠다.

〈분석자료〉 코끼리 아이 번역 그림책

번호	출판사	출판 년도	그림 작가	글/번역	제목	시리즈명칭
1	대능	1984	-	-	코끼리 코는 왜 길까요?	조기학습필독도서 어 린이홈스쿨세계명작
2	이 일 출 판사	1997	-	-	코끼리 코는 왜 길까	밀레니아 어린이 명 작동화
3	계 림 닷 컴	2001	홍성지	-	호기심 많은 아 기코끼리	피즐 명작동화
4	한 국 슈 타이너	2002	아카사 카미요시	다니 신스케	코끼리 코는 왜 길까?	차일드애플 창작동화
5	웅 진 다 책	2003	박수지	길지연	아기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	토토리 세계 명작동 화
6	토 마 토 하우스	2004	젤카 라이히만	박혜수	호기심쟁이 아기 코끼리	-
7	배 동 바 지	2005	노만 고바티	이태영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	-
8	은 하 수 미디어	2007	모음	-	코끼리 코는 왜 길까?	후크 북
9	블 루 엔 트리	2013	장 자크 프룬	함춘성	아기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	궁금개념동화
10	한 국 헤 멩웨이	2015	제프리 패터슨	김성준	코끼리 코는 왜 길어졌을까요?	기초논술 수상 창작 동화

참고문헌

- 강경이 (2015) 「외국 아동·청소년문학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교육적 기대규
범」, 『번역학연구』 16(5): 7-37.
- 고선주, 김민건, 김세희, 마사키, 오연주, 이성엽, 조은숙, 현은자 (2008) 『세계
그림책의 역사』, 서울: 학지사.
- 김서정 율김 (2001)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II, 서울: 시공사. (Nodelman,
Perry (1996) *The Pleasure of Children's Literature*, London: Longman).

- 김정민 옮김 (200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서울: 학지사. (Herbert P. Ginsburg, Sylvia Oppen (198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London: Pearson).
- 김세희, 현은자 (2005) 『그림책의 이해』 II, 파주: 사계절.
- 김정준, 신원애 (2016) 「그림책에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의미 분석: 볼로냐 라가치상 국내 수상작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3): 179-202.
- 권승희 (2015) 『좋은 그림책의 기본』, 파주: 미진사.
- 나선희 (2009) 『그림책 작가의 쓰기 및 유아 독자의 읽기 전략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옥수 (2010) 「문학 번역의 대상 독자층이 번역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비교문학』 50: 123-150.
- 신세니, 안지성 (2012)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번역에서 나타난 파라텍스트의 변형 연구」, 『유아교육연구』 32(3): 73-101.
- 신혜은 (2009) 「그림책 번역시 나타나는 제목의 변형과 그 이유」,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10(2): 223-249.
- 이윤희 (2013) 「대입논술고사의 개념과 변천」, 『작문연구』 17(0): 271-298.
- 임종기 (1994) 『출판물에 있어서 파라텍스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sikszentmihalyi, Mihaly (2015) *The Systems Model of Creativity: The Collected Works of Mihaly Csikszentmihalyi*, New York: Springer.
- Genette, Ge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ambridge U P.
- Karlin, Daniel (2016) 'Introduction', in Rudyard Kipling *Stories and Poems*, Oxford: Oxford U P.
- Nikolajeva, Maria & Carole Scott (2013) *How Picturebooks Work*, New York: Routledge.
- Oittinen, Riitta (2006) 'No Innocent act—On the Eth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Coillie, Jan Van and Walter P. Verschueren (ed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Challenges and Strategies*, Manchester: St. Jerome, 35-45.

Petzold, Dieter (1987) 'Fantasy out of Myth and Fable: Animal Stories in Rudyard Kipling and Richard Adams',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12(1): 15-19.

Sutherland, John (2013) *A Little History of Literature*, New Haven: Yale U P.

<인터넷 자료>

Morpurgo, Michael (2013) 'How Rudyard Kipling's Just So Stories Became Music to My Ears' *The Guardian*, 4 January.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3/jan/04/rudyard-kipling-just-so-stories-ears>

[Abstract]

**The Translation Strategies Revealed
in the Paratexts of *The Elephant's Child***

Lee, Kang Su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lation strategies which the 10 translated picturebooks of *The Elephant's Child* written by Kipling employ. Each book takes its own translation strategy, especially on the paratexts, to attract the potential purchasers who are mostly the parents of target readers. Some paratexts help the reader to understand and enjoy the narrative deep, while some others do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the readers are pre-school aged children, the reading is expected to be an innocent act only to enjoy the pleasure of story, free from any studying pressure. But the analysis shows the paratexts strongly reflect the change of education curriculum of the target culture to get the parents' attention. Though this paper analyses only a dozen of translated storybooks of one source published from 1984 to 2015, but it still shows the change of educational tendency during that period, and it says the characteristic of the target culture.

▶ Key Words: translation strategies, Kipling, picturebook, paratexts, preschool aged children

이강선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수

sunrisin@hanmail.net

관심분야: 소설번역, 어린이문학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7일